

삼겹살 먹기도 벅차...외식 물가 끝모를 고공행진

소비자원 1월 '참가격' 통계...삼겹살값 전국서 광주만 올라
목욕·이용 등 서비스, 김밥·칼국수 외식 메뉴 가격 천정부지
고급리·고물가 고통 서민들 올해도 절약·내핍 생활 불가피

시민들의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의 1인분 판매 가격이 광주에서 최초로 1만5000원을 넘어섰다. 삼겹살과 냉면 등 대표 외식 메뉴 값은 물론 목욕 요금과 이용 요금 등 일상의 기본 서비스 가격마저 전달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쉬지 않고 상승세를 그렸던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초부터 외식 물가와 생활 물가까지 뛰면서 서민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절약 생활을 한데 이어, 올해도 물가가 심상치 않으면서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은 내핍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의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만5280원으로 전달(1만4844원)보다 3%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삼겹살 외식 가격이 1만50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광주의 삼겹살 1인분 외식가격은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평균인 1만6776원보다는 적었지만, 삼겹살 가격이 전달보다 인상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냉면은 전달 9400원에서 1월 9600원으로 2.2% (200원) 인상됐다. 지난해 큰 폭으로 뛰었던 김밥(3160원), 짜장면(6800원), 칼국수(8200원)의

외식 가격은 전달과 같았지만, 이들의 가격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각각 6.7%(김밥), 9.6%(짜장면), 2.5%(칼국수)로 이미 오른 대로 오른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서비스 가격도 증가했다. 광주의 1월 목욕 요금은 전달(7400원)보다 2.7% 오른 7600원으로 조사됐고, 이용(이발) 가격은 1만3400원으로 전달에 걸쭉 3% 올랐다. 이중 목욕 요금은 6000~7000원을 받는 곳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7000~8000원을 받는 곳이 더 많아졌다. 또 이용 가격도 대부분 업소가 1만~1만2000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절반 가까이가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전남도 역시 대표 외식 메뉴 3가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칼국수 가격은 전달 8556원에서 8667원으로 올랐고, 비빔밥은 8611원으로 전달보다 1.3%(111원), 김치찌개 백반도 7500원에서 7611원으로 비싸졌다. 전남의 목욕 요금도 전달 7889원에서 8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겹살(외식)의 물가 상승은 전달보다 2.7% 올랐고, 돼지갈비(외식)도 2.6%



13일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점주가 삼겹살 1인분이 든 접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광주지역 식당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만5280원으로 전달(1만4844원)보다 3% 가량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5000원을 돌파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증가했다. 특히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삼겹살은 4.2%나 비싸졌고, 쇠고기(외식)도 4.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물가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숙박 부문 등락률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4.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목적별로 살펴볼 때 '기

타 상품서비스' 부문의 전년 동월 비 증가율이 6.4%로 가장 컸다. 기타 상품서비스 품목 중 미용료와 이용료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9.4%, 9.9% 증가했다.

전남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는데, 전남 역시 음식·숙박 등락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로 뛰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보다 높았다. 전남 또한 광주와 유사하게 기타 상품서비스의 등락률이 5.3%로 소비자물가보다 높았고 특히 미용료(3.5%), 이용료(17.5%)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IA 새 사령탑에 이범호 타격 코치

계약금 3억, 총액 9억 2년 계약

'이범호'가 V12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범호(사진) 1군 타격 코치가 13일 KIA 타이거즈 제11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 등 총 9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18면>

2017년 타이거즈 11번째 우승 중심에 섰던 '만루 사나이' 이범호는 감독으로 또 다른 환희의 순간을 그리게 됐다.

대구고 출신의 이범호 신임 감독은 2000년 한화 이글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0년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거쳐 2011년 KIA 유니폼을 입었다.

KBO리그에서 19시즌을 뛴 그는 통산 타율 0.271, 1727안타, 329홈런, 1127타점이라는 기

록을 남겼다.

특히 만루에서 17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역대 통산 만루홈런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범호 신임 감독은 타자로서의 성적은 물론 타이거즈 캡틴으로서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2019시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상당한 은퇴식도 치렀다.

은퇴 후 일본 프로야구(NPB)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은 이범호 신임 감독은 2021시즌에는 퓨처스 총괄코치를 맡아 퓨처스 선수단을 이끌기도 했다.

KIA는 퓨처스 총괄코치로서 팀을 운영한 이력과 1군 타격코치로서의 경험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종국 감독 논



인사를 나눴다.

오전 훈련이 끝난 뒤 진행된 선수단 전체 미팅에서 이범호 신임 감독은 "여기 계시분들하고 야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하던 그대로 감독님 없을 때 우리가 운동했던 그 느낌 그대로 운동을 해줬으면 한다"며 "올 시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몰입 양면으로 돕겠다. 선수들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캔베라=글·사진 김여을 기자 wool@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예산 3.6배 증액

AI·차세대 반도체 등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며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

를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인재 국내유치를 위해 입국에서 생활, 국적취득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도 늘린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일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외출이 필요없는 산지쇼핑트렌드

농수축산물은 남도장터에서

검색창에 남도장터를 검색하세요